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함

12/0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빌 2:1-8 (3-8)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 3:21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 8:33

33 굴욕 속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 장의 중점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20-21 절). 2 장의 중점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 곧 우리의 모형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 본은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다(12 절). 2 장 5 절부터 16 절까지는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본을 이루어 내시어 구원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시는 것을 계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살며,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7, 21 쪽)

빌립보서 2 장 6 절에서 ‘존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 과거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히 1:3)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질 및 본성과 일치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위격의 본질과 본성을 표현한다.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를 가리킨다.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아서 놓지 않고 보유해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빌 2:6).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본성은 내려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내려놓으심으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2 장 7 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을 때, 소유하신 것 곧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으셨다. 7 절에서 사용된

‘모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6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사용된 ‘모습’과 동일한 단어이다. 주님은 육체가 되실 때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외적인 표현을 가장 높은 모습인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낮은 모습인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신 것이다. 이것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것이다. ‘되셨으며’는 새로운 상태에 이르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의 내적인 실재를 의미하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존재의 실재를 가지셨다.

이어서 빌립보서 2 장 8 절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시어 인성의 상태에 이르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형태’는 외모, 외관을 의미한다.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먼저 그분은 그분의 신격의 모습, 곧 그분의 신격의 외적 표현을 내려놓으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을 가진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이러한 동등함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음을 가리킨다.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신을 비우신 것을 나타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의 절정이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였다(신 21:22-23). 이방인들이 볼 때 그것은 범죄자로나 노예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마 27:16-17, 20-23). 그러므로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히 12:2).

주님은 일곱 단계로 낮아지셨다. 즉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5-1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02 화요일

아침의 누림

빌 2:12-13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행 2:32-33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행 5:31

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5:24-28

24 그다음은 끝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시고,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26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그중에 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28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우리의 본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빌립보서 2 장 9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우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셨다. 이것은 본의 객관적인 방면과 관련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셋째 하늘에만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높이 올려지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분을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려면 이 본이 반드시 주관적이어야 한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0-1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빌 2:12)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우리 자신의 행위에 속한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 구원은 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열쇠는 빌립보서 2 장 12 절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여기의 구원은 불 못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아니다. 그보다 여기의 구원은 바울이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가리킨다. 12 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의 결과임을 가리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앞의 절들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한 결과이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에서 성취되려면, 본이 우리에게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어야 한다. 본이 다만 객관적일 뿐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의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내는 구원이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유죄판결과 불 못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다. 그러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낼 필요가 없다. 여기 빌립보서에서의 구원은 다른 종류의 구원, 혹은 다른 수준의 구원이다. ... 빌립보서 2 장 12 절에서의 구원은 사실상 살아 있는 인격이다. 이 인격은 바로 우리가 살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그리스도이다. 객관적이기만 한 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이 살아 있는 인격이고 이 인격이 우리의 본이라는 사실은 이 본이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임을 가리킨다.

본이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빌립보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과 관련 있다. 어떤 것이든 영적인 체험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 주관적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을 근거로 할 때,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이시며 체험적이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에 대해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빌 2:13) 빌립보서 2 장 13 절 시작의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과 관련됨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분명 13 절에 있는 ‘행함’은 12 절에 있는 ‘이루어 냄’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시인할 것이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한 바울의 말은 그 본이 객관적일 뿐 아니라 또한 주관적인 것임을 추가적으로 보여 준다. ...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과 협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1-1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03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골 3:3-4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엡 1:19-22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고전 2:12, 16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6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 장 5 절부터 8 절까지에서 제시된 본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일곱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모든 방면이다. 그리스도는 신격의 존재의 표현을 가지셨지만 이 표현을 내려놓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신격의 존재의 실재를 내려놓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보다 높은 모습인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훨씬 낮은 모습인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 이렇게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다. 확실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표시이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겉모양으로 나타나신 후,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온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살아 낸

것이였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7-1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외적인 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러한 속생명으로서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체험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러한 생활 안에는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을 위한 여지가 없다. 반대로 거기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생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본이신 분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만이 그러한 본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여전히 경쟁이나 헛된 영광에서 나온 것들을 행하거나 인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거나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참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결코 그 무엇도 보배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 생명은 언제나 지위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한다.

빌립보서 2 장에 있는 본이 우리의 내적 생명이 될 때 그 본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경쟁과 헛된 영광에서 구원받는다. 빌립보 사람들이 기꺼이 이러한 본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경쟁과 헛된 영광으로 인해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항상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생명을 살고 아무것도 보배로 붙잡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본과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사도를 지극히 기쁘게 했을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7, 25-26 쪽)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영의 교통과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바울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바울의 관심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본으로 취하고 십자가에 못박힌 생명을 사는 것에 있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9 쪽)

빌립보서 2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한다. 5 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5 절에 있는 ‘이 생각’은 3 절에 있는 ‘여기는 것’과 4 절에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빌 2:7-8),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빌 1:8).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내적 느낌과 생각에서 하나 되는 정도까지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7, 21-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7

12/0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2:6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요 14:28

28 내가 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유 11

11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샅을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적인 길을 따라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1:5, 9

5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롬 16:18, 26

18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26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 4:10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28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행 6:2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많은 제자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고 말한다(요 10:30).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으며, 이 말씀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었다. 이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자 사람이 가까이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똑같이 능하시며, 함께 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내재적인 본성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신격 안에서의 안배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한다(빌 2:6). ...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은 그분께서 강제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주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은 그분께서 스스로 주장하시거나 강탈하신 것이 아니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8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2 장 5 절부터 7 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8 절부터 11 절까지가 또 한 단락을 이룬다. 첫째 단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에 관한 것이다. 둘째 단락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에 관한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두 번 낮추셨다. 주님은 먼저 신격 안에서 자신을 비우셨고, 그런 다음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격의 존재의 영광과 능력과 위치와 형상을 비우셨다.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결과, 그 당시에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 주님은 자원하시어 신격 안에서 아들이 되실 것을 선택하셨고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요 14:28)라고 말씀하셨다. 아들의 위치는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신격 안에는 완전한 조화와 동등함이 있지만, 안배에 따라 아버지는 기꺼이 머리가 되셔야 하고, 아들은 기꺼이 복종하셔야 한다. 아버지는 권위의 대표가 되셨고, 아들은 복종의 대표가 되셨다.

주님의 복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시는 것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다. 복종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신격의 존재의 영광과 능력과 위치와 형상을 비우셔야 했을 뿐 아니라 노예의 모습을 입으셔야 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은 복종이라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종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시하신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한 면으로는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다른 한 면으로는 복종을 취하셨다. 주님은 노예가 되시어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다. 신격 안에서의 순종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분은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자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주님께서 복종을 창시하셨으므로, 아버지는 신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다. 권위와 복종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복종의 원칙이 동반된다. 따라서 복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또한 복종으로 충만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가 왜 복종해야 합니까?” 혹은 “저도 형제이고 형제님도 형제인데 왜 제가 형제님에게 복종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 사실 이와 같은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한 권위이듯이, 그리스도의 복종 또한 완전한 복종을 대표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종은 알지 못한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84-1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2/05 금요일

아침의 누림히 5:7-9

7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8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9 그분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히 12:7, 10, 28

7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롬 1:5

5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4:11

11 그런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딤후 3:1

1 그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며,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주님은 그분의 신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님이 되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 것은 그분께서 신격 안에서 자신을 비우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주 예수님의 신격은 그분의 존재에 근거한다. 그분께서 하나님인 것은 본래부터 그분의 위치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님의 위치를 획득하신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한다. 그분께서 신성한 모습을 제쳐 두시고 복종의 원칙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늘들로 올려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께 주님의 위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에 근거해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얻으신 것에 근거해서는 주님이시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86-1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2 장 5 절부터 11 절까지는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가장 변론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또한 가장 신성한 부분이다. ... 태초에 우주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신격의 회의가 있었다. 이 계획 안에서 신격의 셋은 아버지께서 권위의 대표가 되시는 것에 서로 동의하시고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위만 있고 복종이 없다면 권위는 세워질 수 없는데, 그것은 권위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 가운데에는 반드시 복종이 있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두 종류의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천사들 곧 영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곧 혼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지를 통해 천사들의 반역과 사람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가 천사들과 아담의 자손들 위에 세워질 수 없음을 미리 아셨다. 신격 안에서 조화롭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 권위가 먼저 신격 안에서 세워지기로 정해졌다.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운행과 아들 하나님의 운행에 구별이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비우시어 창조된 사람이 되심으로써 권위를 향한 복종의 대표가 되셨다. ... 죄를 짓고 거역한 것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의 복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모든 면에서 창조된 사람과 똑같이 되셔야 했다.

주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나오심이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남아 계심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간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간적인 제한들, 심지어 노예로서 감당해야 할 제한들을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 편에서 큰 위험을 무릅쓰신 것이었다. 일단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오시게 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분께서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의 위치를 행사하시어 그분의 신격의 존재의 신성한 모습을 되찾으실 수는 있었겠지만, 복종의 원칙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신성한 모습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께서 되돌아가실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다. 한 가지 길은 그분께서 합당한 사람이 되시어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거역의 기색조차 없이 절대적이고 주저함 없이 복종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되돌아가시고 주님으로 세워지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예가 되시는 것이 그분께 너무 힘겹거나 육체의

연약함과 제한이 그분께 너무 버겁거나 복종이 그분께 너무 벅찬 것이라면, 다른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그분의 신격의 존재의 권위와 영광을 행사하시어 자신의 힘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 번째 길을 거절하셨다. 이 두 번째 길은 그분께서 가시려던 길이 아니었다. 주님은 이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길을 감당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채우실 수 없었다. 주님의 생각은 동요가 없었다. ... 되돌아가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의 위치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노정을 끝마치셨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87-1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2/06 토요일

아침의 누림

빌 2:9-11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신 5:31-33

31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라. 내가 너에게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말해 주겠다.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준행하게 하여라.
32 그러니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지켜 준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33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고 잘될 것이며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신 6:1-6

1 “이것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어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서,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여러분이 준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그리하여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대와 그대의 아들과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그대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지키게 하려는 것이며, 또 그대가 오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이여! 그러니 이것을 듣고 지켜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그대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대가 잘되고 수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5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으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 오늘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그대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위치로 되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완전하고 단순하게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조금도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신격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단지 전에 비운 것이 다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격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사람)이 되셨고, 이제 다시 신격 안으로 받아들여지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보배로움을 안다. 온 우주에 그분과 같은 분이 없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의 주님의 말씀은 단지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셨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은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해 준다. ...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분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말해 준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88-1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신격의 존재에 의해 되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높이 올려지심으로써 되돌아 가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종의 원칙을 유지하시는 방식이다. ... 우리는 권위에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 안에서 복종하심으로써 하늘로 되돌아가셨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 성경 전체에서 이 단락(빌 2:5-11)만큼 비밀스러운 단락을 찾기가 어렵다. 주님은 신성한 모습과 작별하신 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신성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실 수 없었다. 주님 안에 불순종의 작은 흔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높이 올리셨다. 그분은 나오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되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되찾으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 복종의 원칙을 아는 사람은 모두 거역보다 더 추한 죄는 없고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복종의 원칙을 볼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원칙은 주님께서 복종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복종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일단 거역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히 5:8). ...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순종할 때, 참된 복종이 나타난다. 한 사람의 유용성은 그가 고난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지 않고, 그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는지에 달려 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유용하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 우리의 길은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 안락과 즐거움을 좇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들 가운데 순종을 배워야 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을 함께 가져오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주님은 고난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구원은 기쁨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복종도 가져온다. ... 복종하는 이들만이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본성이 변질될 것이다.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해야 한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 복종이 쉬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간단한 일이 된다. 이는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89-1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5 장

12/07 주일

아침의 누림

마 7:21-29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할 것이지만,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25 비가 쏟아지고, 큰물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에 부딪쳤으나, 무너지지 않은 것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26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27 비가 쏟아지고, 큰물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이 무너져도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28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자,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29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